2026-11-18

Economy Brief

27년 성장률 3.9%: 파격적인 KDI 전망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KDI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3.8%로 27년 GDP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상향 수정: 27년 성장률 전망치 3.9%는 대부분의 전망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다소 파격적인 전망치임

KDI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공장 건설 등이 26년 성장률의 절반, 27년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1만포인트 이상이 지속 가능한 새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6년 3%대 후반으로 반등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3%대 초반을 유지한다고 예상함

KDI 경제전망: 26년 성장률 3.8%에 이어 27년에는 3.9%라는 파격적 전망치 제시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다소는 파격적인 27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KDI는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을 3.8%로 27년 GDP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수정 전망했다. KDI의 기존 26년과 27년 GDP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2%와 2.2%였다. 이번 KDI 수정 경제전망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27년 성장률 수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수정은 1~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부문이지만 27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3.9%로 1.7%p나 상향 조정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은행의 현 성장률 전망치는 26년 3.3%, 27년 2.9%이다. 한국은행은 27년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7년 KDI 성장률 전망치는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성장률 서베이의 평균치인 2.8%는 물론 최고치 3.6% 수준보다도 높은 성장률 전망치다.

KDI의 27년 경제 전망의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KDI 경제전망, 2026하반기, 11월 18일 자료 참조)

- 우선 대외여건의 경우 27년 세계 성장률은 26년(3.1%)보다 높은 3.4% 전망
- 27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 기준) 86달러로 26년(94달러) 대비 9% 하락
-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 국내 경제의 경우 민간소비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점차 나타나며, 2026년(1.8%)보다 높은 2.4%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견조한 가운데 여타 부문도 개선되며, 2026년(8.7%)에 이어 2027년(8.1%)에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는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토목 부문에서도 관련 플랜트 공사가 이어지면서, 2026년(0.0%)보다 높은 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수출은 반도체 및 AI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의 수요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투자 증가로 생산능력도 확충되면서 2026년(10.3%)에 이어 2027년에도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 및 교역조건 개선으로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 경상수지는 2026년(5,160억달러)에 이어 2027년에도 6,000억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26년(2.7%)보다 낮은 2.4% 상승할 전망: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수요 측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2026년(2.6%)에 이어 2027년(2.5%)에도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상의 KDI 경제전망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 성장률을 높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공장 건설 등이 26년 성장률의 절반, 27년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더불어 성장률을 상향 조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건설투자이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0%로 예상한 반면에 2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5%로 예상했다. 당사의 전망과 유사하게 KDI 역시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과 플랜트 관련 토목 공사 증가가 건설투자 증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성장 전망치만으로 본 경기사이클의 경우에는 약간의 상저하고 흐름을 전망했다. 26년 상하반기 성장률이 3.8%로 동일한 성장률을 전망한 가운데 27년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은 각각 3.7%와 4.0%를 전망했기 때문이다.

성장률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역시 AI 투자사이클의 위험을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추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해 있음을 지적했다. 참고로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22~25년 평균 7.5%에서 2026년 상반기 20.7%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KDI는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다소 상향 조정되었지만 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년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근원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와 내년을 모두 2.5%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수요 견인 물가압력을 다소 높게 판단했다.

한편, 환율과 관련하여 KDI측은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는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6년 5,162억 달러, 27년 6,013억 달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수급 측면에서 원화 추가 강세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모건스탠리 전망과 궤를 같이하는 KDI 전망

AI 투자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KDI의 긍정적인 27년 성장률 전망은 반가운 뉴스라 할 수 있다. 특히 KDI 전망이 최근 한국 증시와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 모건스탠리 전망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1만포인트 이상이 지속 가능한 새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략산업 재편과 반도체 호황, 자본시장·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한국 증시 재평가를 이끌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과거와 다른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 여름 이후 코스피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설명이다. 2006~2011년과 2016~2022년 두 차례 재평가 시도는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6년 3%대 후반으로 반등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3%대 초반을 유지한다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도 기존 2% 안팎에서 3%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매경이코노미, 11월 17일 기사 참조)

물론 KDI와 모건스탠리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경제와 증시의 낙관론을 떠 받치고 있는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도 큰 반면 최근 우려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 투자사이클과 관련한 다소의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AI 중심의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 재편을 고려할 때에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분명하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AI 사이클에 호황 속에서 대운(大運)을 맞이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는 것 역시 분명하다. 당사 역시 올해와 내년 국내 성장률을 각각 3.8%와 3.4%로 전망하고 있듯이 AI 투자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1. KDI 수정 경제 전망(26년 11월)

(YoY %, 억 달러)

		25년	26년			27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 총생산		1.1	3.8	3.8	**3.8**	3.7	4.0	**3.9**
총소비		1.8	2.6	1.5	**2.0**	2.2	3.1	**2.7**
	민간소비	1.5	2.6	1.1	**1.8**	1.6	3.1	**2.4**
총고정투자		-3.4	2.1	6.0	**4.1**	5.7	4.6	**5.1**
	설비투자	1.5	5.4	11.9	**8.7**	9.5	6.9	**8.1**
	건설투자	-9.7	-1.5	1.3	**0.0**	2.3	2.8	**2.5**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3.0	3.8	6.6	**5.3**	6.0	4.7	**5.3**
총수출(물량)		4.3	10.3	10.3	**10.3**	8.0	8.2	**8.1**
총수입(물량)		3.3	7.3	8.7	**8.0**	9.4	9.8	**9.6**
경상수지		1,231	1,910	3,252	**51,362**	2,719	3,294	**6,013**
상품수지		1,381	1,938	3,237	**5,176**	2,854	3,424	**6,278**
	수출	7,189	5,281	7,061	**12,342**	6,787	7,585	**14,372**
	(증가율)	2.1	54.3	87.4	**71.7**	28.5	7.4	**16.4**
	수입	5,809	3,342	3,824	**7,166**	3,932	4,161	**8,093**
	(증가율)	-2.1	17.6	28.9	**23.4**	17.7	8.8	**12.9**
소비자물가		2.1	2.5	2.9	**2.7**	2.6	2.1	**2.4**
	근원	1.9	2.3	3.0	**2.6**	2.8	2.3	**2.5**

자료: KDI,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